[기조연설]

전 세계 비핵화 원칙 추구해야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라는 권위 있는 모임에 연설자로 초대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최 측과 동료 연사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뉴질랜드 원주민 언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 아하 테 메아 누이 오 테 아오, 헤 탕가타 헤 탕가타 헤 탕가타." 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다. 그것은 사람이다. 그것은 사람이다"란 말입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속담을 소개한 이유는 논의의 초점을 부각시키고 이 자리가 최신 기술이나 외계의 장엄하고 신비로운 현상을 논하기 위한 곳이 아님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평화와 안보가 보장된 삶에 대한 염원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마오리족은 지난 수세기 동안 거의 1000년에 걸쳐 거대한 태평양을 건너 뉴질랜드에 도착했고, 폴리네시아인들은 대만 원주민의 먼 후손들입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이 나라와 국민들의 역동성에 감동합니다. 하지만 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72년간 분단된 이 나라의 고통스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인 부모로부터 나라의 분단이 일으키는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분단의 원인은 식민지화와 종교였고, 한국의 경우는 세계정치를 좌우하는 이념 때문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서로 같은 것은 없고, 아일랜드와 한반도의 역사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8선 이북의 한국인들도 지금의 대한민국과 같은 개방되고 번영된 사회를 원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북한의 정책을 규탄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기존의 규탄 목소리에 당연히 동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회의의 주제인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에 따라 과거 여러 번 논의된 문제를 되풀이하기보다 대안과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는 1998년 아일랜드에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성금요일 협정'과 같은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경색된 교착상태를 벗

어나 전진하는 길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협상이야말로 진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한반도 문제의 관련 당사자들 모두 평화적 협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해 결국 한반도 통일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1945년 유엔이 설정한 목표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1921년 아일랜드의 분단에서 1998년 협정까지 77년이 걸렸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협력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좀 더 폭넓은 비핵화의 맥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독일과 함께 유엔 5개 상임이사국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란 핵무기 폐기협정이 나타내듯이, 또 다른 접근 방법의 하나인 협상을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이루어낸 진전과 비슷한 결과를 북한과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는 오랫동안 핵무기 반대 입장을 취해왔고, 이는 전통 우방들과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시기에 축적해온 핵무기의 감축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여전히 전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핵무기 반대 역사를 고려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이 더 빠르게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자의 핵무기 성능과 추진 장치를 향상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성능 개발 비용은 미국의 경우 1조 달러를 넘고, 러시아도 비슷한 규모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 핵무기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세계는 핵 위협에 놓여 있고, 경우에 따라 단 한 사람이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 발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는 이 냉엄한 사실을 고찰해야 합니다.

제주포럼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75억 인구는 핵무기 보유국들이 협력하여 핵무기를 남김없이 제거하는 계획을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아닌 협력은 일촉즉발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을 막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단순하고 실용적인 이유에서도, 무기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은 비용이 매우 적게 듭니다.

경제협력은 균형 잡힌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잘 나타납니다. 대한민국과 아시아가 이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아시아 경제권을 세계와 연결시키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이러한 진전을 환영합니다. 뉴질랜드도 수많은 협정을 체결했고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최초의 선진국입니다.

아시아와 세계의 협력은 세계의 번영을 이끌고,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 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평화와 안보가 보장된 세계에 대한 바람을 말해왔지만 우리 모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기업 활동의 조정을 위해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과 기업 활동이 국가에 대한 책무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유출된 파나마 페이퍼는 각국 정부에 대기업과 부유층의 탈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 세법을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에, 각국은 세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세법이 정직하게 시행될 수 있게 하는 데도 국가 간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불공평한 경제정책에 지쳐 있다는 점은 영국의 제레미 코빈이나 미국의 버니 샌더스와 같은 비주류 정치인들이 가진 호소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정책으로 소수가 대다수의 희생으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는 매우 역동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동성조차도 금융위기 충격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창의성은 사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지만 그것도 한 국가의 사회구조와 법률이 그러한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가능해집니다. 용기 있는 지도력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야만 합니다.

소수의 세력은 공포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세계 공동체 내 다양성과 신념의 차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를 괴롭히는 인종·종교 간 분쟁이 일으키는 공포는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는 난민 대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20세기 중반 서구문명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인종적 편견과 유사한 사태에 또다시 직면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비극입니다. 인종주의적 시각이 21세기의 세계에도 떠돌고 있고, 몇몇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세계는 이러한 사태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고 소수의 난민만을 받아들이는 현실로 인해 비극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종 간 갈등은 그것이 종교 때문이든 아니든 공동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쳐놓았습니다. 또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방치될 경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수백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회의는 전 세계의 국가들을 불러모아 긴급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범위 이내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행동을 취할까요? 섭씨 2도의 상승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해안지역의 침수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온도 상승이 2도를 초과한다면 그 결과는 궤멸적일 것입니다.

이는 인구 대량 이주를 의미하며, 오늘날 난민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수많은 인구를 이주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탄소배출 저감 조치를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디젤 자동차 구매를 불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네덜란드나 가격경쟁력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한 노르웨이처럼 몇몇 나라들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또한 전기자동차 수요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다른 조치로 중국과 몇몇 나라들처럼 오염이 심한 석탄발전을 제한하기 위해 태양열에 투자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요점은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지금 요구됩니다. 미래의 어느 날로 미뤄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 역사에서 많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아시아는 이제 탄소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앞장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중차대한 도전 과제를 살펴보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계는 지식의 급속한 성장을 통해 보기 드문 가능성의 문턱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인종, 피부색, 종교를 뛰어넘어 모든 개인을 고유한 존재로 인정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인식도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한다면, 가능성은 무한합니다.